

신설 야간학과 운영계획 발표

공통교양 공대서 합동강의, 1교시 5시30분

수원캠퍼스 교무과는 92년 신설 야간학과와 준비계획 및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러시아어·국제관계학과 공통교양과목은 공대강의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과목은 형편에 따라 소속 단대에서 강의하게 된다.

또한 공대 201호에 러시아어·국제관계학과 공통교양실을 마련

하며 조교는 각과 1명씩 2명이 발령된다.

반면 러시아어학과는 외대 206호에 학과사무실 겸 학회실을 설치하고 도서관이 이주하는대로 분리시킬 계획이라 한다.

야간학과 수업시간표는 전체 5교시로 강의는 45분간 오후 5시 30분에 1교시가 시작되며 5분간 휴식시간을 갖는다.

1·2·3교시에 전공과목을 4·5·6교시는 공통교양과목으로 시간조정을 하여 교양과목에 한해 야간학과 학생도 중간에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전체수업이 오후 9시30분에 끝남에 따라 외대 도서관 개관을 저녁 9시까지 연장한다.

올 야간학과 신입교수는 러시아어와 1명뿐이고 국제관계학과

자와 각종 대회 우승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학사편입자 발표 15개학과 20명선발

92학년도 학사편입학 합격자가 지난 26일 발표됐다.

학사편입학 시험은 당해 학년에 진급할 자격이 있거나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3학년 총정원 2%이내에 한해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실시되었다.

한편 학사편입학 합격자는 서울 11개학과 16명, 수원 4개학과 4명 등 총 15개 학과 20명이다.

학과별 합격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철학과, 생물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의학과, 의학과 각 1명씩, 국문과영문과, 법학과 각 2명씩, 신문방송학과 3명.

(수원캠퍼스) 사회학과, 수학과, 환경학과, 기계공학과 각 1명씩

체육특기자 1백15명 선발

92학년도 체육특기자 입학성이 서울 41명, 수원 74명 등 총 1백15명으로 확정됐다.

축구, 체조, 농구, 아이스하키 등 19개 종목에 걸쳐 선발된 이번 체육특기자중에는 전국체전 우승

'고향문화상' 현상공모 6일까지 원고 마감

본교 교지인 '고향'에서는 고

향문화상을 현상공모 한다.

단일 종합전산망 구축

양캠퍼스 데이터 교환, 화일전송 가능

서울캠퍼스 관리과는 작년 3월 시작한 서울캠퍼스내 근거리 종합정보 통신망시스템(LAN)공사를 3월 말까지 완공하기 위해 현재 공사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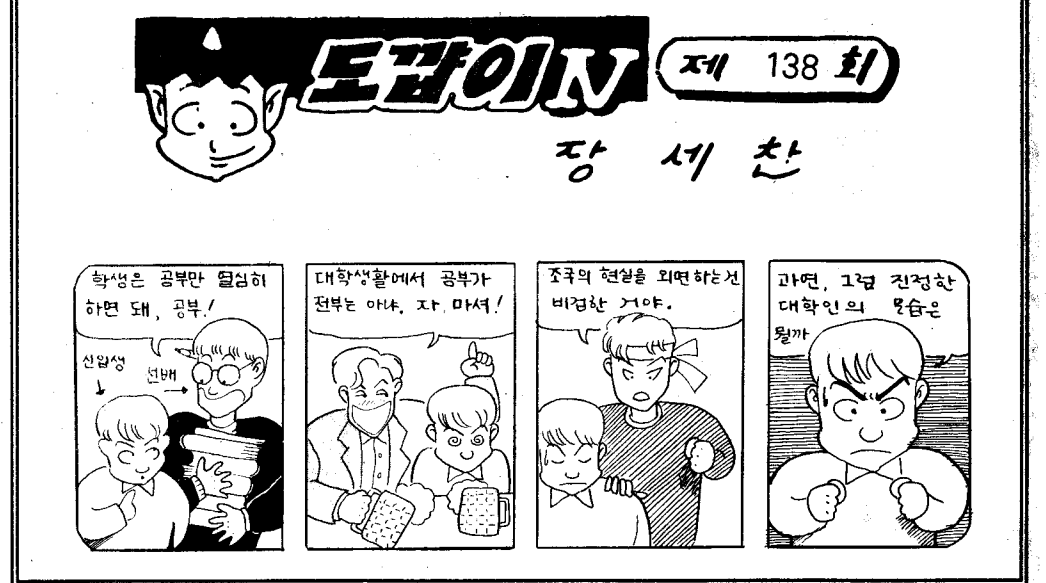
양캠퍼스 종합전산망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에서 현재 서울캠퍼스 각 건물 및 건물내부의 방에 광케이블 설치 등 기반공사가 완료되었고, 각 개인용 컴퓨터와 중앙컴퓨터와의 연결과 작년 12월 완공된 수원캠퍼스 LAN시스템의 연결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양캠퍼스

스간의 단일전산망 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며, 이에따라 교내 개인용 컴퓨터와 화일전송, 데이터교환, 전자우편 기능들이 가능해지며 중앙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자료까지 선별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수 3명 정년 퇴임식 오는 7일 도서관시청각실서

서정범(문리대·국문과) 교수와 고일섭(의과대·의학과), 김충일(체대·무용과) 교수의 정년퇴임식



공모분야는 시, 소설, 희곡이며 시는 80매 내외로 서울은 한의대 지하2층 고향편집실, 수원캠퍼스는 학생회관 4층 고향편집실에 오는 6월 오후 4시까지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에는 시 20만원, 소설·희곡 30만원의 교료가 지급되며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

한편 당선작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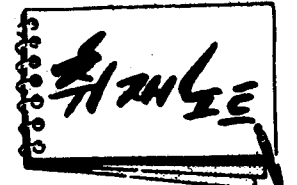
◇...민자의 3대 공약

공민여러분, 민자가 공민여러분에게 약속을 하

1. 전투경찰의 소멸화: 전투경찰 못썰졌더라구요. 모조리 백골단으로 바꿔버려야겠어요.
2. 전국민의 당원화: 생계를 밝히삼아 가입시키다보면, 가입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3. 확실한 물가인상: 1인당 수입액을 뿌릴 수 있는 재력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물가인상이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주세요. 확실한 민자입니다.

◇...근거없는 소문은 어느것?

고향문화의 높은 분께서 친히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던데, 사실인즉 某단과대학장이 등록금 19%인상이라



는 근거없는 소문에 흔들리시지(?) 말라고 집집에 통신문을 보내신 것. 신입생 등록금은 19%가 올랐는데 재학생들에게는 근거없는 소문이라니, 그 통신문이 근거없는 소문은 아닌지 노트로 알뜰살뜰.

◇...O·T·람(?)

학생들 OT, 학교측 OT를 모두 참석한 신입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오는데, OT(오리엔테이션)의 본래 의미는 other training(각자 교육)의 약자인 것 같다고. S대는 학생·학교 공동주최로 신입생 90% 참석이나 아담법석인데 우리도 양쪽의 단합된 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소?

◇...열시오 일회용(?)

고향문화선 최한인 종류의 일회용품들이 등장, 화제라던데. 5월의 거리에서 쓰인 '열시오의 초상화'가 이젠 중앙대자보판 뒷구석에 내려져 있더라나. 일회용품은쓰지마도 등장한 일회용품사태라지만 獨형네들! 열시오마저도 '일회용'으로 치부해버릴 겁니까?

◇...요즘종 물렸잖지

요즘은 은(銀)과 은(銀)의 구좌를 신랄하느라 복새를 이룬다는데. 다름아닌 선거철이 되자 일부 후보자들이 예금통장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이라고. 아직도 자유당과 5공시절을 못잊어하는 후보자들엔 언제나 곁에서 깨시킴니다.

일회용 전략한 열시오의 초상화

의·치대 국가고시 1백% 합격 한의사도 95.3% 통과

지난 1월중 치러진 92년도 보건의 약관계 국가시험에서 의사, 치과 의사 부문에서 1백% 합격율을 보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작년 국가시험의 문제성으로 한의대, 치대의 합격률이 70%미만의 성적을 보인데 반해 올해 1월20일 치러진 제44회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서 7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되었으며 제45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1백29명 응시에 1백26명 합격해 95.3%의 합격율을 나타냈다.

또한 의과대학은 지난 1월15일 실시된 제55회 의사국가시험에서 1백12명 응시에 1백%의 합격율을 보였다.

인북위 '복덕방' 설치계획 자취학생 불이익 해소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북위)는 많은 지방학생들이 자취방이나 하숙방을 구할때 불이익을 당하는 점을 감안, 서천리 자취학생 협의회(이하 서자협) 구성과 인북위내 '학생복덕방' 설치를 계획중에 있다.

현재 서천리대내에서 자취방을 구할 경우 계약서 일일불로 지불해야 하는 등 뚜렷한 원칙없이 자취방 주인들의 답답으로 방세가 오른 상황으로 학생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인북위는 자취학생들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학생들이 스스로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서천리지지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때늦은 '告解聖事'

〈수백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섰노라, 별레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아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 그대/몸종이로 내리쳐서 깨었는가? .../잠하도다/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쓰이 하데오여.../〉(송정오장 송가' 중에서)

이 시는 우리문단의 자랑인 미당 서정주씨(77)의 친일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중의 하나이다.

최근 그의 불후의 명작중 하나인 '화사집' 출판 50주년을 맞아 날로 국어의 조탁에 큰 힘을 기울이는 그에 대한 각계 각층의 평가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최고

다. 명실공히 우리문단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친일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해 주목을 끈다.

계간 '시와 시화' 불후에 실린 대담기사 '시와 시인을 찾아서'에서 소위 친일행위에 관해서 잠시 언급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나도 남달처럼 참چه경매도 했다고'고 밝히고 "그 시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그것이 새삼 아픔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런 미당의 속죄의 말속에서 작품가가 주목코자하는 것은 왜 미당이 누구나 다 아는 그의 친일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문을 바

보는 인생의 황혼기에 와서 속죄하는 것인가이다.

왜 좀더 일찍 솔직하지 못했을까?

1945년 해방후 곧 바로 자신의 과오를 토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시류에 휩쓸려 다니다가 종작에 와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물론 사황자는 그의 인간적인 고뇌까지는 헤아릴 길이 없다.

하지만 그는 우리문단의 내노라하는 문인들의 한 사람으로, 그만큼 일개 지식인은 문인의 신분으로 감당치 못하는 무형의 영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해방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민족정기 회

복에 대해서 그에게 맡겨진 유·무형의 역사적 책무를 해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민족정기가 일그러질대로 일그러진 오늘에 와서야 슬며시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고 나섰 것이다.

그렇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은 해야할 시기에 해야 빛이 나는 법.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소용돌이 치는 물길속에 돌하나 집어 넣어 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와서 고인골 행복시작을 노래해봤자 그는 역사가 맡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그의 시는 두고두고 살아있을지언정

그속에서 '흔'은 빠져있고 겹겹이 감싸여 있어있을뿐이다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우리문단의 최고봉인 미당의 작품에 '흔'이 '정신'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미당은 반성의 자리에서조차 용어선택에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자신의 친일행위가 '새삼,아름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새삼'은 '쓰라린'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황자는 미당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용기조차도 이미 우리곁에서 찾아보기 힘들정도이니까.

〈春秋〉

기초러시아어 특강

수원캠퍼스 외국어대는 92년도 1학기동안 '기초러시아어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본교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Gatina 모스크바대 영문과 교수가 강의를 맡게 되며 모든 단과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다.

한편 특강을 추진해 온 허중교수는 "학생들의 학력증진뿐 아니라 러시아어의 소개를 위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92 V.O.U 1학기 프로그램 편성표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월	화	수	목	금	토
8:30	캠퍼스로 가는 길				
8:50	경희 아침 NEWS(캠페인)				
8:55					
12:00	경희 낮 NEWS(캠페인)				
12:05	캠퍼스 신호등				
12:10	합계하는 민중가요				
12:15	고향물 25시	한소리 열두마당	여보세요 잠깐만요	국경일엔	V.O.U. 기자석
12:25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12:35					
4:30	경희 종합 NEWS				
4:40	알고 쓰시다				
4:45	보내온 음악연지	현장! 대학스케치 5분정보	그날이 오면	우리들의 세계	예술의 샘터
5:05	클래식 가든				
5:20	사색의 길				
5:25					

월	화	수	목	금
9:10	캠퍼스로 가는 길			
9:20	경희 아침 NEWS(캠페인)			
9:30	VOU 캠페인			
12:30	NEWS와 해설			
12:45	음악이 있는 오후			
13:00	취재스크림	VOU 기자석	보도 기획	취재스크림
13:05	합계하는 세상	VOU 기자석	보도 기획	취재스크림
13:10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13:15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13:20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매제속의 이야기
13:30				
16:30	NEWS와 해설			
16:40	음악이 있는 오후			
17:00	VOU 소극장	우리 가락	소리 공간을	명곡의 선율
17:10	우리 가락	우리 가락	우리 가락	우리 가락
17:15	오늘의 만남	오늘의 만남	오늘의 만남	오늘의 만남

월	화	수	목	금
13:00	VOU NEWS			
13:10	VOU 캠페인			
13:15	우리가 모인 이유는			
13:25	영성음악			
13:30	V.O.U. 취재현장			
13:40	V.O.U. 스케치			
13:50	1. 잠깐 타이프			
14:00	2. 우리가 우리를			
14:10	3. 카메라 테스트			
14:20	문화정보			

●방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시
●방송장소: 학생회관 식당
공과대 휴게실
체과대 휴게실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COMPUTER
대학생 특별할인판매

경희전자
항상 전화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TEL. 703-1427

PALCOM 시리즈는 논문, 보고서
작성 등 대학생에 적합한 컴퓨터로
통신정보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들입니다.

사양	모델	P286(Mono)	P386(Mono)	P386DX(컬러)
CPU및 메인보드		80286-16AT	DX 33 /64C	DX 33 /64C
메인 memory		1MB	4MB	4MB
F.D.D		1.2MB	1.2MB, 1.44MB	1.44MB
H.D.D		40MB	105MB	105MB
monitor		14" B/W	14" B/W	14" super VGA
video		Mono한글·한자	MKC-6	Optima mega
speed		21.7MHz	58MHz	58MHz
가 격		₩650,000	₩1,510,000	₩1,880,000

*P286(컬러)은 ₩980,000에 제공합니다.
*구입자 서비스품: DOS 안내책자, 보안키, 마우스, 컨테이너

경희전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0
용산컴퓨터 도매상가 6동 2층 117호 TEL. 703-1427. 717.
-6611(교2117)